

“광주 미래산업 방향, AI·모빌리티 등 세계 흐름 부합”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36개사 기술역량 선봬 姜시장 “노하우 축적...AI대표도시 광주 힘 세계 전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IT)기술 전시회 ‘CES 2025’에 광주공동관과 통합 한국관 내 광주관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8일 오전 7시(현지시간 7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식을 동시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은 온라인 영상으로 개관식에 참여했다.

현지에서는 박성철 인비스 대표, 송준은 이-솔테크 대표 등 참가 기업과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병인 전남대학교 교학부총장과 학생들,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 박세진 금호고속 상무, 양향자 전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초 광주시는 강 시장 등이 포함된 광주대표단을 꾸려 ‘CES 2025’에 참가

할 계획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해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담당 실무자를 중심으로 규모를 최소화했다.

강 시장은 온라인 영상을 연결해 개관식과 광주공동관 참가 기업 부스를 살펴봤다.

광주공동관에는 (주)인비스, 주식회사 정선메드, (주)트위그림, 이-솔테크, (주)아트랩, (주)인디제이, (주)호그리언어, (주)리버트리, 주식회사 유니컴퍼니, 에코피스 주식회사, (주)블루캡슐 등 11개 사가 우수 기술·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CES 2025’에 광주공동관 11개사, KOTRA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4개사 등 15개 사를 지원해 참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CES 혁신상 신청 지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교육, 비즈 매칭 등 글로벌시장



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 광주공동관 온라인 개관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전시 참가 이후에도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지원 기업 외에도 지역 기업 21개사 등 총 36개사가 ‘CES 2025’에 출전, 우수한 기술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공동관은 바이어와 방문자들의 편의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전면에 안내 부스를 설치해 전시관 안내와 광주시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간 내부에는 기업 홍보와 피칭 공간까지 꾸렸다.

이곳에서는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 기업들의 혁신 제품들을 선보인다. ▲‘주식회사 정선메드’의 음성을 활용한 시니어 건강관리 ▲‘트위그림’의 맞춤형 다국어 제공 서비스 플랫폼 ▲‘(주)아트랩’의 피부 등 AI뷰티 솔루션 ▲‘(주)리버트리’의 실시간 사서업무지원 솔루션 등이 전시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공동관 온라인 투어 이후 삼성C-LAB관을 찾아 ‘CES 2025’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주)스트랩스와 혁신상을 받은 마인스페이스의 전시 제품을 둘러봤다.

강기정 시장은 “CES 2025는 AI, 모빌리티 등이 중심이고 이는 광주 미래산업 방향이 세계적 흐름과 정확히 부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AI 대표도시 광주의 힘을 세계에 많이 알려 달라”고 참가 기업들을 격려했다. /변은진기자

전남도, 나주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잔결음

산단 조기 활성화 관계기관 회의...기관별 협력 방안 논의

전남도는 8일 “에너지신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나주시청에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관별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단지는 2022년 12월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후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환경·재해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뒀다.

그동안 전남도는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인·

허가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해당 인·허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와 동시에 토지 보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사업 시행 구역 결정과 보상 업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방문 설명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단지는 2030년까지 나주 혁신산업단지 인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3천685억원을 투입해 122만㎡ 규모로 조성, 에너지밸리산업과 신소재나노융합소재산업 등 에너지신산업의 성장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나주 에너지국가산단단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계별 개발을 통해 기업에 부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등으로 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제수용·선물용 가공식품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조리식품(떡류·전·튀김·김·김밥·김치 등), 가공식품(한과·두부류·식용유·주류·당면 등), 수산물(굴·바·조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생선전 등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살모넬라 등 식중독 원인균 ▲한과 등 식용유지류는 산가(기름의 부패도) ▲수산물은 방사능·유해중금속 기준규격 검사 등을 실시한다. /변은진기자

도, 농어촌진흥기금 500억원 연리 1% 융자 지원

개인 1억·법인 2억 한도 내

전남도는 8일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0억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해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

업인이나 전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원(학사농업인 2억원), 법인은 2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저온저장고 설치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패,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해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남도에서 2월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정책이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 노사민정, GGM 노사 상생·협력 촉구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8일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노사 문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명시한 협력적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

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노사가 현안 협의 과정에서 근로조건 결정·해석, 협의 진행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최근 노사 대화가 중단되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또 “광주형일자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 모델”이라며 “단순히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 광주 시민의 경제적 희망과 연결돼 있는 만큼 GGM 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역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경철정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임의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